

태국 한인상가, 정국불안 속 경기부진 '울상'

방콕 시내 식당 등 수개월째 매출 부진 태국 총리 대행, 8월 3일 재총선 제안

태국에서 정치 위기가 장기화하자 방콕 시내 한인 상가들이 경기 부진으로 인한 애로를 겪고 있다.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식당 등은 지난 3월 반정부 시위대가 방콕 시내 점거 시위를 중단하자 매출 부진에서 다소 벗어났다. 그러나 이달 들어 일락 친나왓 전 총리 해임으로 태국 정국 위기가 깊어지면서 다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채용기 재태국한인회장은 21일 한국 교민과 주재원,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수쿰빗 지역, 아속 사거리 등의 한인 상가들이 태국 정국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맞닥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정부 시위대가 정부 청사 주변과 주요 교통요지를 점거했던 '방콕 섯다운(shut-down)' 시위를 종결한 뒤 잠깐 경기 회복 조짐이 보였으나 이달 들어 다시 영업난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방콕 시내 있는 식당, 여행 관련 기업 등 한인 상가들은 태국내 한국 교민, 현지 태국인 등을 대상으로 영업 중이나 한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도 주요 고객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해 말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후 치안이 불안해지자 한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이 대폭 감소했다.

이 때문에 골프장, 스파업소, 토산품점 등 한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태국 내 한국계 여행업체 관계자는 한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인상가가 모여있는 수쿰빗 플라자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윤모씨는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매출이 30~40%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쿰빗 플라자는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중심가에 있어 웬만해서는 매출 변동이 심하지 않으나 이번에는 정정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타격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쿰빗 지역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이모(32)씨는 "태국에서 정치 갈등은 군대가 나서기 전에 해소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군이 개입해서라도 정정 불안이 빨리 해소되길 바라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을 가급적 빨리 매듭짓는 게 경제에 대한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 군은 20일 정국 악화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한국계 기업이나 교민들은 시위 사태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한편 태국 정부는 재총선일을 8월3일(이하 현지시간)로 제안했다. 니와통롱 분송파이산 과도총리 대행은 21일 정치적 혼란을 끝내기 위해 새로운 선거일을 정해 선거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지난 2월 실시한 조기 총선이 무효가 돼 오는 7월 재총선을 실시키로 잠정 결정됐으나, 반정부 진영이 새 과도정부 구성을 주장하며 선거에 반대하고 있다.

삼계탕, 미국인 식탁에 오른다

이르면 내달말...농식품부, 오리 수출도 추진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식품인 삼계탕이 미국으로 수출돼 이르면 다음달 말께 미국인의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삼계탕의 미국 수출 길이 열리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04년 4월 미국 농무부에 수출 허용을 신청한 지 10년여만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가 한국산 삼계탕 등 가공육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최종법률을 공포한 시점부터 60일이 되는 25일부터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을 생산하는 수출업체인 DM푸드·마니커·하림 2곳 등 모두 4곳

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당국이 요청한 검역지침 준수 여부 등 100여 개 항목에 걸쳐 최종점검을 했다.

삼계탕 첫 수출일자는 삼계탕 수출증명서 문구와 업체에서 사용할 상품 표시 사항 등에 대한 미국 당국과의 협의가 이면 주내에 마무리 되면 곧바로 결정될 예정이다. 수출화물이 배로 미국에 도착하는 기간이 통상 20여일이고 통관 기간까지 고려하면 미국인들이나 교민들이 이르면 6월말께, 늦어도 7월에는 삼계탕을 맛볼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수출을 계기로 육가공품 오리의 대미 수출도 추진할 방침이다.

"영 불후의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 캘리포니아 작곡 '토리스' 표절했다"

저작권 확인 소송 제기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레드 제플린'의 대표 명곡인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고 20일 미국 언론이 전했다.

시사주간지 타임 등에 따르면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 측은 레드 제플린이 1971년 발표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캘리포니아가 1968년 작곡한 '토리스'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의 재산 관리인인 프랜시스 맬러피는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레드 제플린이 '토리스'의 핵심 반복 구(리프)를 훔쳐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인 지미 페이지가 이 곡을 실은 4집 앨범을 발매하기 1년 전인 1970년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피릿의 베이시인 마크 앤디스는 1969년 미국 전역을 돌며 공연할 때 '토리스'가 항상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회고했다. 캘리포니아는 1997년 음악 전문지인 리스너 매거진에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표절한 노래라며 레드 제플린 멤버들이 때돈을 벌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으로 거둔 수익은 2008년까지 5억6200만달러(5760억원)로 추산된다.



20일(현지시간) 두 차례의 차량 폭탄테러로 최소 118명이 숨진, 나이지리아 중부 조스시의 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나이지리아 폭탄테러 100여명 사망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 소행 추정

과격 무장 이슬람단체의 여학생 납치 사건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20일(현지시간) 두 차례의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 118명이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중부 조스시의 버스 터미널과 시장이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30분 간

격으로 폭발이 일어났으며 주변 일대는 순식간에 아바규환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폭발 이후 현장에 파견된 구조대원이 숨지기도 했다.

국가응급관리기구(NEMA) 책임자인 무함마드 압둘살람은 "현재 파악한 사망자 숫자만 118명"이라며 "폭발로 무너진

건물 잔해 밑에 시신이 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참사를 저질렀다고 밝힌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목격자들은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표식을 봤다며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추정했다.

이 지역은 평소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 간 갈등으로 종교 분쟁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 국력 조너선 대통령은 보코하람을 지목하지는 않고 조스시에 대한 공격은 "인간 자유에 대한 비극적인 공격"이며 가해자는 "잔인하고 사악하다"고 즉시 비난했다. 하지만 조너선 대통령은 이미 나이지리아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시위 요구에 직면한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약 200명이 넘는 여학생을 납치해 국제사회의 거센 지탄을 받은 보코하람은 현재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수감된 동료와 인질을 맞바꾸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의 여신상 물에 잠길 수도

미 과학자, 해수면 상승 美 국가기념물들 직격탄

급격한 기후 변화로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국가 기념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걱정하는 과학자 모임'(UCS)의 발표를 인용해 해수면 상승, 해안 침식, 홍수·폭우·산불 증가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명소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전했다.

UCS는 훼손 위험에 처한 '국가 지정 기념물'(National Landmarks) 중 30곳을 추렸다. 국가 지정 기념물은 미국 정부가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충분하

다고 판단해 나라 유산으로 지정한 약 2500 곳이다.

이 중에는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 영국이 미국에 건설한 최초의 식민지인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 달 착륙선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린 플로리다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케네디 우주센터가 포함됐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해터러스 꽃 등대를 비롯한 다수의 국립공원, 스페인·영국 식민 통치 기구가 있던 곳 등 미국의 발자취를 추적할 수 있는 여러 장소가 기후 변화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UCS는 소개했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적공인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핀 X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